

성인의 작문과 문법에 대한 인식 및 능력 조사*

김정선** · 이삼형*** · 김시정****

〈차례〉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결과 및 논의
- IV. 결론

I. 서론

언어에 관한 **읽**, 즉 문법적 지식은 음운, 어휘, 문장, 담화 등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며 독서(읽기), 작문(쓰기), 화법(말하기·듣기) 등 국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정보 등을 문자 언어를 통해 체계적이고 관습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작문(쓰기) 기능은 다른 언어 사용 기능에 비해 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제7차 작문 교육과정에서도 문법과 작문의 연계

*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 용역연구과제(2015)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를 둔 성취기준이 설정된 바 있었으며 학계의 관련 논의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이삼형(2010)에서는 “문법은 글쓰기를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잘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고, 정희창(2010)에서는 “우리는 국어학적 지식이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정희모(2013)에서도 작문에서 글쓴이의 문법 체계는 문장과 텍스트 작성의 근원적 바탕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작문과 문법의 관련성에 대하여 뚜렷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양자의 연계 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어 능력으로의 일부인 문법 능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생활에 적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학교 현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렵기만 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영역으로만 여기는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문법’이 ‘작문(쓰기)’, ‘독서(읽기)’ 등의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지식으로서의 문법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문법으로 그 성격이 다시 설정됨에 따라,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주세형 2005, 민현식 2010, 임규홍 2010, 전은주 2010, 이삼형 외 2013, 2014).

특히 성인의 경우, 고등학교까지의 문법 교육이 완전하지 않아 교정적 언어 교육(prescriptive approaches, Halliday, 1976)으로서의 문법교육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은 어문규범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

문법 교육의 개선(改新)을 위하여 실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여러 매체의 발달로 작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법을 새롭게 교육할 것이 요구된

1) 박미영(2013:47)에서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 대상의 국어 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문교육 위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 사용 능력인 말하기와 글쓰기 등은 구성 비율이 높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 즉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설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문(쓰기)이라는 실용적 맥락에서 문법 내용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법의 실용성 확보와 작문(쓰기)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작문과 문법에 대한 인식 실태와 능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태 조사는 성인의 작문 실태와 문법 실태를 총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지필 검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설문 조사에서는 작문 실태와 문법 실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고, 지필 검사에서는 문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휘, 표기, 문장, 담화의 언어 층위별 문법 문항을 출제하여 조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설문 조사와 지필 검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각의 조사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사 내용

(1) 설문 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총 15문항이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묻는 3문항과 작문(쓰기)와 문법 실태를 조사하는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 조사 내용

구분	항목(문항 번호)	문항 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계열/직업	3
	학년/연령	
	성별	
작문(쓰기)와 문법 실태	쓰기 능력의 중요성 인식 상황 (1)	12
	글의 유형별 쓰기 빈도 (2)	
	글의 유형별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3)	
	쓰기와 문법 의식 정도 (4)	
	문법을 고려하는 쓰기 상황 (5)	
	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6)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불만족 이유 (7)	
	문법 학습 경험 (8)	
	문법 지식의 쓰기에의 유용성 (9)	
	문법 문제의 해결 방법 (10)	
	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 (11)	
	문법 기술 방식의 선호도 (12)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계열/직업, 학년/연령, 성별’로 이루어진다. ‘계열/직업’은 예비사회인인 대학생은 ‘인문 및 예체능 계열, 자연계열’로 구분하고, ‘직업’은 ‘회사원(사무직, 영업직), 공무원, 주부, 기타’로 구분하였다.²⁾ 작문(쓰기)와 문법 실태는 ‘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언제 인식하는지, 글의 유형별 수행 빈도와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쓰기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등 쓰기 실태에 대한 5문항과 ‘문법을 언제 공부하였는지, 문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문법 실태에 대한 4문항, ‘글을 쓸 때 문법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문법 지식이 쓰기에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문법과 쓰기를

2) 조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 표본 설계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참조.

연계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지필 검사

지필 검사의 평가 문항은 영역별 핵심 문법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출제하여 영역별로 배열하였다. 문항별 출제 의도를 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³⁾

<표 2> 평가 문항의 출제 의도

영역(번호)	출제 요소	출제 의도
표기(1)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함.
표기(2)	띄어쓰기	띄어쓰기의 원칙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함.
표기(3)	표준어	표준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함.
어휘(4)	의미와 용법	문장 층위에서 고유어의 의미 이해 능력을 평가함.
어휘(5)	유의 관계	의미 관계 중 한자어 유의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함.
어휘(6)	관용 표현	제시된 담화에 적절한 관용 표현을 떠올리고 보기에서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함.
문장(7)	높임법	주어(주체)의 성격에 따라 서술어의 올바른 사용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함.

3)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법 평가 문항은 정규 교육을 마친 성인의 기본 문법 지식이라 볼 수 있고, 작문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평가 문항의 수는 장소원(2012)의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는 평가 시간과 피평가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문장(8)	의문문	의문사가 포함된 문장이 억양에 따라 설명의문문과 관정의문문으로 기능함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함.
문장(9)	문장 성분의 호응	문장 성분의 호응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함.
담화(10)	접속 표현	제시된 담화의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하는 연결어를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함.
담화(11)	통일성	전체 담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않은 문장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함.
담화(12)	지시 표현	지시 표현이 지시하는 바를 정확히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함.

표기 영역은 총 3문항으로 국어 어문규범 가운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하였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가운데 작문에서의 중요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1문항을 출제하였다. 어휘 영역은 총 3문항으로 어휘 층위의 중요 내용인 어휘의 의미, 의미 관계, 관용 표현을 각각 1문항씩 출제하였다. 문장 영역은 총 3문항으로, 국어 문장 구조, 문법 표현 등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담화 영역은 담화로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인 통일성과 응집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3문항을 출제하였다.⁴⁾

4) 성인의 문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필검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문항을 출제하였다.

- ① 총 12문항으로 지필 고사로 진행한다.
- ② 영역은 '표기, 어휘, 문장, 담화'로 구분하여 각각 3문항씩 출제한다.
- ③ 문항의 출제 형식은 체점의 용이성과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사지선 다형으로 한다.
- ④ 문항의 난이도는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상 20%, 중 60%, 하 20%로 한다.

2. 표본 설계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조사는 성인의 작문 능력과 문법 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일반적인 성인의 실태 파악과 자료 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예비사회인(대학생)과 사회인으로 구분하였으며, 특정 학과와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사회인은 인문·예체능계와 자연계로 나누고 다양한 학과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사회인은 회사원(사무직, 영업직), 공무원, 주부, 기타로 나누어 수집하였다.⁵⁾

응답자는 총 201명이며 응답자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분포

구분		남자	여자	총합계
예비사회인 (대학생)	인문계·예체능계	26	25	51
	자연계	46	3	49
	소계	72	28	100
사회인 ⁶⁾	회사원(사무직)	18	20	38
	회사원(영업직)	10	0	10
	공무원	15	10	25
	주부	0	26	26
	기타	1	1	2
	소계	44	57	101
총합계		116	85	201

5) 작문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 내용을 감안할 때, 정규 학교 교육 이후 작문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효용성 면에서 유리하겠다는 연구진의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들과 대학 졸업자의 구분을 위해 각각 예비사회인, 사회인이라 명명하였다. 사회인의 경우도 평소에 작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본 설계는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지만 향후 대규모 조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다.

자료 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이며, 조사 방법은 집합조사법과 배포조사법을 병행하였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지역은 서울, 경기도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13일~31일(19일간)이다.

자료의 입력은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구하고 응답자 인적 사항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반응 빈도와 집단 간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피어슨(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χ^2)을 이용하였다. 지필 검사는 응답자별 총점을 구하고, 평가 영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 분산 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위 통계 검증 작업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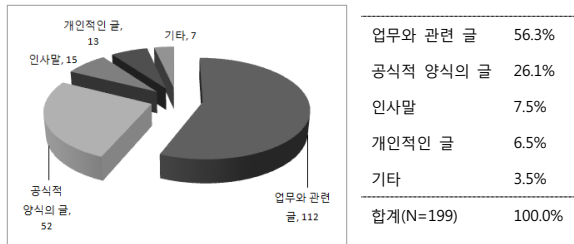
(1) 쓰기 능력의 중요성 인식 상황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와 관련된 글(보고서, 기획서 등)을 쓸 때(56.3%)’

6) 사회인의 연령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연령	성별		총합계
	남자	여자	
20대	4	11	15
30대	22	16	38
40대	18	27	45
50대 이상	0	3	3
총합계	44	57	101

라는 응답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식적(민원, 상담 등)에 따라 쓸 때'라는 응답도 26.1%를 보여 대체로 공식적인 글에서 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문서, 민원서, 보고서, 기획서' 등의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제)을 설정하여 교육 내용 및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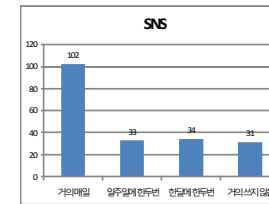
[그림 1] 쓰기 능력의 중요성 인식 상황

(2) 글의 유형별 쓰기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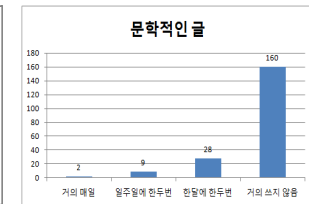
성인들이 자주 쓰는 글의 유형을 '공문, 이메일(업무용), 이메일(친교용), 보고서·기획서, 정부·민간기관 게시판(민원, 상담 등), SNS, 카페·블로그 등의 일상글, 일기, 인사글(축하문, 조의문, 격려문), 문학적인 글'로 제시하고 각각의 쓰기 빈도를 조사한 결과 SNS에서 가장 활발하게 글쓰기를 했으며, 문학적인 글은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조사 결과는 예비사회인과 사회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다.

SNS에 글 쓰는 빈도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51%나 차지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도 16.5%를 보여 가장 빈번한 글쓰기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문학적인 글은 80.4%가 거의 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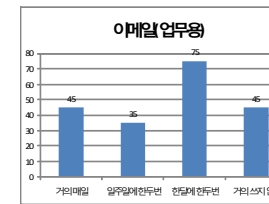


[그림 2] SNS 수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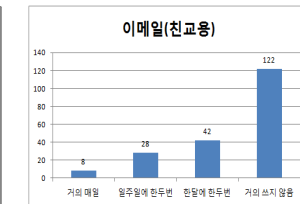


[그림 3] 문학적인 글 수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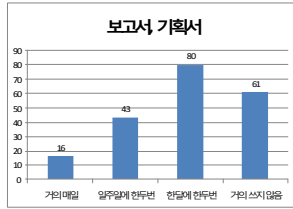
한편, 업무용 이메일, 보고서 등 업무와 관련된 글들은 비교적 성인이 자주 쓰는 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그림 6] 참조). 특히 이메일의 경우 친교용보다는 업무용으로 훨씬 빈번하게 쓰고 있었고, 축하문, 조의문, 격려문, 인사 글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40%를 차지하여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비교적 자주 쓰는 글로 파악되었다([그림 5], [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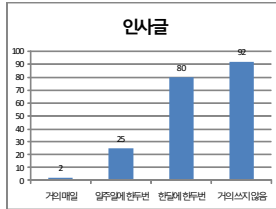
[그림 4] 이메일(업무용) 수행 빈도



[그림 5] 이메일(친교용) 수행 빈도



[그림 6] 보고서, 기획서 수행 빈도



[그림 7] 인사글 수행 빈도

이러한 성인의 글의 유형별 쓰기 빈도를 통해 성인의 글쓰기가 주로 공적인 글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이메일, SNS 등 달라진 매체 환경에서의 글쓰기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작문 교육의 내용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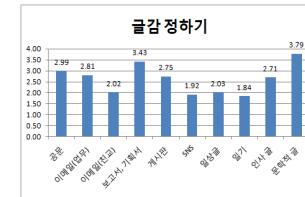
(3) 글의 유형별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다음으로 글의 유형별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⁸⁾, ‘문학적인 글’이 글 쓰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빈도와 관련지어 보면, 문학적인 글은 쓰는 빈도가 높지 않은, 즉 일반 성인이 문학적인 글을 써야 할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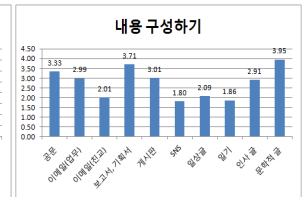
흥미로운 결과는 글을 쓰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글감 정하기, 내용 구성하기,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문법에 맞는 문장쓰기’와 같은 과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기획서 쓰기’, ‘공문’, ‘업무용 이메일’ 등 업무와 관련된 글과 민원이나 상담, 참여를 위한 ‘정부·민간기관 게시판’에 쓰

8) 글의 유형은 앞서 (2)에서 제시한 10개의 유형을 동일하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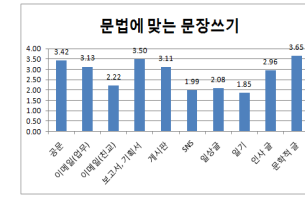
는 글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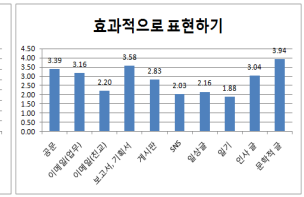
[그림 8] 글감 정하기의 어려움 정도



[그림 9] 내용 구성하기의 어려움 정도



[그림 10] 문법에 맞는 문장쓰기의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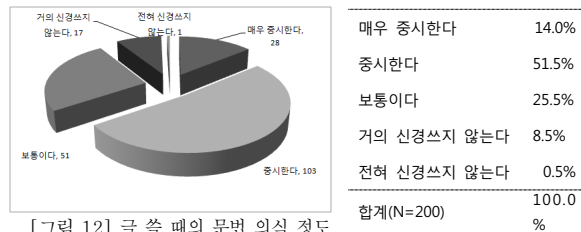


[그림 11]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의 어려움 정도

기존의 작문 교육은 인지주의의 영향으로 주로 쓰기의 과정별로 전략을 지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인의 작문 교육에서는 과정 중심의 지도보다는 글의 문종이나 장르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표현, 쓰기 관습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쓰기와 문법 의식 정도

평소 글을 쓰며 문법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중시한다'라고 응답하여, 비교적 성인들의 다수가 글을 쓰며 문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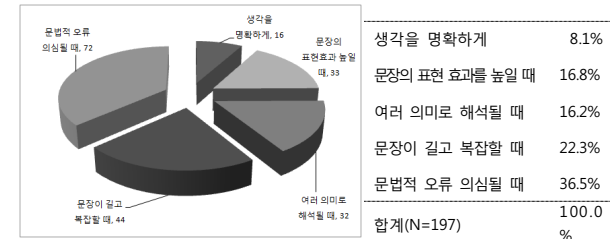


[그림 12] 글 쓸 때의 문법 의식 정도

(5) 문법을 고려하는 쓰기 상황

어떤 상황에서 문법을 고려하며 글을 쓰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문법적 오류가 의심될 때(37%) >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22%) > 문장의 표현 효과를 높일 때(17%) > 여러 의미로 해석될 때(16%) >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인이 문법을 고려하는 상황이 문법적 오류의 회피 이외에도 사고의 명확화, 문장의 표현 효과 강화 등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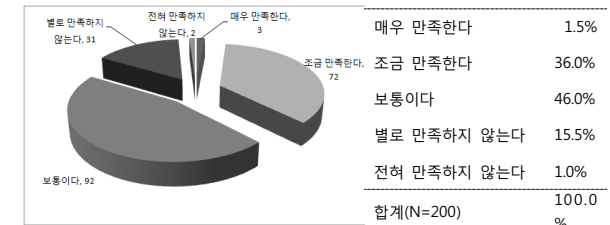
기존 작문교육에서의 문법은 정확성과 오류 교정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조사 결과 수사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문법 및 언어 표현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문장의 복잡성, 중의성 등 의미 이해와 관련된 교육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 문법을 고려하는 쓰기 상황

(6) 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응답자의 46%(92명)가 '보통이다', 38%(75명)가 '만족한다', 17%(33명)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자신의 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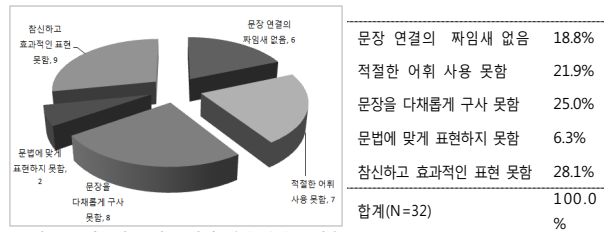


[그림 14] 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7)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불만족 이유

자신이 쓴 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문법에 맞는 표현(6.3%)보다는 참신하고 효과적인 표현 효과(28.1%), 다양한 문장의 사용(25.0%), 적절한 어휘 사용(21.9%), 짜임새 있는 문장의 연결(18.8%) 등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언어에 대한 심층적 고려 없이, 작문론 측면으로만 강조하던 수사법이나 기교, 문체 등의 문제를 표현, 어휘, 문장 등 언어학적 측면으로 재해석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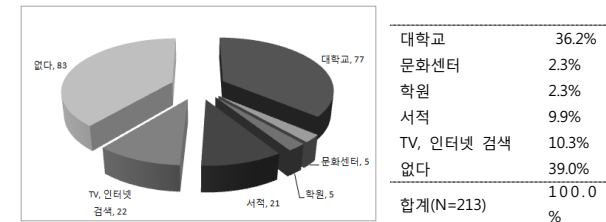
[그림 15]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불만족 이유

(8) 문법 학습 경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어 문법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9%가 '없다'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대학교(36.2%), TV·인터넷 검색(10.3%), 서적(9.9%) 순으로 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고교 졸업 이후, 문법에 대한 학습 기회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학교'라고 응답한 36% 중 20대가 57명, 30대 이상이 20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 연령대별로 문법 교육의 기회가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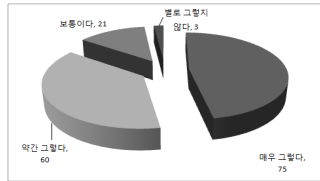
사회인에 대한 교육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이나 포켓북 등의 형태로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더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문법 교육의 경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문법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문법 학습 경험

(9) 문법 지식의 쓰기에의 유용성

문법 지식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9% (135명)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문법과 작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조사 결과 작문 교육시 문법 교육을 포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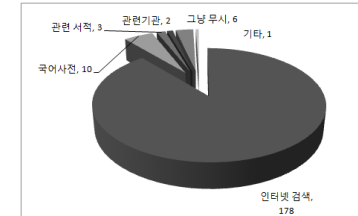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47.2%
약간 그렇다	37.7%
보통이다	13.2%
별로 그렇지 않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	0.0%
합계(N=159)	100.0%

[그림 17] 문법 지식의 쓰기에의 유용성

(10) 문법 문제의 해결 방법

문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응답이 89%라는 높은 비율로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문법 문제'를 문장 구성, 문장 표현의 차원이 아닌 규범적, 표기, 어휘 등으로 축소하여 인식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정보는 바르지 않거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인터넷 국어사전 등의 경우에도 단어 차원의 의미, 형태적 정보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회인이 난점을 느끼는 문장, 문장 이상 층위의 문법 지식은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 작문의 관점에서 문장 이상, 담화 층위의 언어적 지침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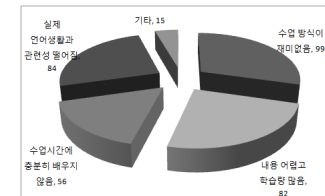
인터넷 검색	89.0%
국어사전	5.0%
관련 서적	1.5%
관련기관	1.0%
그냥 무시	3.0%
기타	0.5%
합계(N=200)	100.0%

[그림 18] 문법 문제의 해결 방법

(11) 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

성인들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의 문제점으로 '수업 방식이 재미없다(29.5%), 내용이 어렵고 학습량이 많다(24.4%),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배우지 않는다(16.7%),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성이 떨어진다(25.0%)'라고 응답해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법 교육이 작문 교육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때 문법은 교수법 및 교재 개발 측면은 상대적으로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는 작문 교육 분야의 교수법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수업 방식이 재미없음	29.5%
내용 어렵고 학습량 많음	24.4%
수업시간에 충분히 배우지 않음	16.7%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성 떨어짐	25.0%
기타	4.5%
합계(N=336)	

[그림 19] 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

(12) 문법 기술 방식의 선호도

지금의 지식 중심의 문법 기술 방식과 글쓰기에 필요한 내용 중심의 문법 기술 방식 중 응답자의 81.1%가 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상적인 문법 내용을 작문과 관련지어 제시함으로써 실생활 연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예문은 개념을 설명하기 쉬운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문을 선택하면 추후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12. 다음 [A], [B] 중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법 교육 방식을 고르시오.

[A] [B]

[A]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격조사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격조사는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등이 있다. (중략) 관형격조사는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사로 대표적으로 '의'가 있다. 활동) 다음 문장에서 관형격 조사가 쓰인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 의미를 말해 보자.

- 저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해답:
 · 저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의 앞 체언에 소속되거나 소유됨을 나타낸다.
 ·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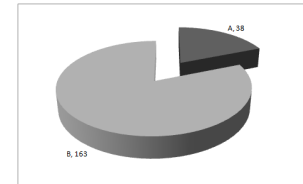
[B]

① 저는 ○○동의 김철수라는 사람입니다. ② 요즘에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서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중략) ③ 꼭 신속히 답변해 주시길요.

활동) 윗글은 인터넷 민원서를 옮긴 것이다. 문법을 고려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자.

해답:
 · ①: '의'는 주로 소유나 소속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살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 고자 할 때는 '에'를 사용한다. 즉 '저는 ○○동에 살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와 같이 고친다.
 · ②: 글은 정확한 표현을 골라 써야 한다. 전염병은 '나타나다'라는 어휘로 표현하기 보다는 널리 퍼지고 있는 대상이므로 유행하다가 적절하다. 즉 '최근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동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고친다.
 · ③: '~주시길요.'는 준말인 '주시길'에 '요'가 붙은 말이다. 준말은 글을 읽는 이에게 가볍고 비공식적인 느낌을 주므로, 공문서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요'는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구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표현한다.



[그림 20] 문법 기술 방식의 선호도

2. 지필 검사

(1) 문항별 정답률

지필 검사 12문항의 문항별 정답률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담화 영역의 '지시 표현' 79.6%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표기 영역의 '띄어쓰기' 11.9%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문항별 정답률은 직접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법 교육 내용 선정에 참조점이 될 수 있다.

<표 4> 문항별 정답률

번호	영역	평가 내용	정답률	순위
1	표기	한글 맞춤법	30.8%	10
2	표기	띄어쓰기	11.9%	12
3	표기	표준어	26.9%	11
4	어휘	의미와 용법(고유어)	44.8%	5
5	어휘	유의 관계	36.3%	8
6	어휘	관용표현	31.8%	9
7	문장	높임법	70.1%	3
8	문장	의문문	40.3%	7
9	문장	문장 성분의 호응	42.8%	6
10	담화	접속 표현	72.6%	2
11	담화	통일성	49.8%	4
12	담화	지시 표현	79.6%	1

(2) 전체 평균

조사 대상자 전체의 총점 평균은 12점 만점에 5.38(표준편차 2.193)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8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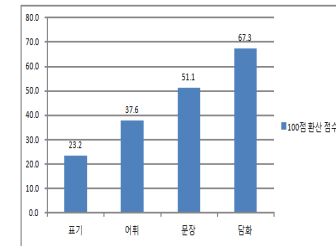
<표 5> 전체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점	201	5.38	2.183	0	12

(3) 영역별 평균

평가 영역별 평균을 보면, 표기가 3점 만점에 .70으로 가장 낮고, 담

화가 3점 만점에 2.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담화 > 문장 > 어휘 > 표기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림 21] 평가 영역별 평균의 환산 점수

<표 6> 평가 영역별 평균

영역	평균	표준편차
표기	.70	.795
어휘	1.13	.929
문장	1.53	.906
담화	2.02	.883

총점의 평균은 20대와 30대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574, p=.000$). 문법 학습 경험과 연관 지어 볼 때 대학교에서 문법에 대한 학습을 경험한 20대가 30대 이상에 비해 총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대학교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중고등 교육과정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 연령 변인에 따른 총점의 평균 비교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20대	114	5.84	1.998
30대 이상	85	4.75	2.288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문(쓰기)과 문법에 대한 인식 실태와 능력 실태를 설문조사와 지필검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성인은 보고서, 공문, 기획서, 민원 등 공적인 글에서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SNS나 업무용 이메일 등 변화된 매체에서 활발히 글을 쓰고 있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글뿐만 아니라 축하문, 조의문, 격려문 등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글도 비교적 자주 작성하고 있었다. 글들을 쓸 때에 느끼는 어려움은 글을 쓰는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글(보고서, 기획서 쓰기, 공문, 업무용 이메일)이나 민원, 상담글 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문법 학습 경험은 '대학(36.2%), TV·인터넷 검색(10.3%), 서적'(9.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없다'는 비율도 39%를 차지해 성인 대상의 문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문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응답이 89%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법적 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규범적 표기나 어휘 등으로 문법을 축소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응답자의 대다수(84.8%)는 문법 지식이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글을 쓰며 문법적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도 사고의 명확화, 문장의 표현 효과 강화 등을 위해서도 문법을 고려하며 글을 쓴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지식 중심 문법 기술 방식보다 글쓰기에 필요한 내용 중심의 문법 기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지필 검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조사 대상자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44.8점이었으며, 언어층위별로는 표기가 2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어휘 37.6점, 문장 51.1점, 담화 67.3점이었다. 총점의 평균은 예비사회인과 사회인, 남자와 여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20대와 30대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설문조사와 지필검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성인들이 글쓰기의 상황에서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문법 교육이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글쓰기에 필요한 실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작문(쓰기)에 필요한 문법은 규범의 차원을 벗어나 사고를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성인 대상의 작문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와 달리 공적인 글, 객관적인 글, 업무 중심의 글,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의 글 등 성인이 필요로 하는 문종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인의 문법 교육이 거의 없었으며, 있더라도 규범 중심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문법 능력은 표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어문규범 위주의 교육도 새로운 관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어 : 작문(composition), 문법 능력(grammar ability), 실용문법(practical grammar), 문법교육(grammar education), 성인(adult), 설문 조사(questionnaire survey), 지필 검사(paper-and-pencil test)

참고문헌

김명순(2004),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61-81쪽.

김봉순(2010),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 체계 연구-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 국어교육학회, 169-209쪽.

김정선·이삼형·정재찬·김혜정·최형용(2014), 「독서문법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한국언어문화』 53, 한국언어문화학회, 107-128쪽.

김종철·김봉순·박재현·박현정·정희창·주재우·박은진·이관희·이지수·정재미·민병곤(2014),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 분석」, 『국어교육연구』 33, 39-73쪽.

김혜숙 외(2012), 『문법교육과 텍스트의 만남: 실천적 탐색과 적용』,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호정(2006),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 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45-177쪽.

노명완·박영목(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민현식(2009),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1-56쪽.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1-37쪽.

박미영(2013), 「성인 대상 국어 재교육의 현황과 전망-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9, 한국작문학회, 37-67쪽.

박형우(2010), 「문법 영역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353-376쪽.

신병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245-278쪽.

양세희(2012), 「문장 교육과 읽기 교육의 통합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349-376쪽.

유혜령·김성숙(2011), 「문법 능력과 작문 능력 간의 상관성 고찰 - 고등학교 1학년생의 논술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611-638쪽.

이관규(2009), 「통합적 문법교육의 의의와 방법」,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259-282쪽.

이삼형(2010), 「'문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통합 문제」,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65-86쪽.

이삼형 외(2013),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국립국어원.

이삼형 외(2014),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이삼형·김시정(2014), 「독서 문법의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 145, 한국어교육학회, 95-124쪽.

이삼형 외(2015),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국립국어원.

이영주(2007), 「통합적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고등학교 국어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69쪽.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 국어교육학회, 171-192쪽.

임구홍(2010), 「문법과 독서의 통합성」,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39-64쪽.

장소원(2012),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87-116쪽.

정희모(2013), 「작문에서 문법의 기능과 역할」, 『청람어문교육』 47, 청람어문학회, 137-168쪽.

정희창(2010), 「글쓰기의 국어학적 분석」, 『반교어문연구』 28, 반교어문학회, 57-85쪽.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주세형(2006), 『문법 지식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도서출판 역락.

주재우(2012), 「장르 중심의 쓰기교육 연구: '자서전 장르'를 대상으로」,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137-158쪽.

Beers, K.(2001), *Contextualizing grammar*, Voices from the middle.

D. C. Mitchell.(1982), *The process of reading: a cognitive analysis of fluent*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London: John Willey & Sons.
 Durkin, D.(1981),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in five basal reader se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Halliday, M.A.K. & Kress, Gunther R.(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selected pap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lliday, M.A.K. & Hasan(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Hoover, W. A., & Gough, P. B.(1990), The simple view of reading.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 p. 127-160.
 Kintsch,W.(1998), *The role of knowledge in discourse comprehension: A construction-integra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Mckenna, Michael C. · Dougherty Stahl, Katherine A(2009). *Assessment for Reading Instuction*.
 Weaver, C. McNally, C., & Moerman, S.(2001), *To grammar or not to grammar: That is not the question!*, voices from the middle.

[부록]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문법 능력 및 작문·문법 실태 조사

일반인용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연구팀에서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작문(쓰기) 능력 및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작문 문법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조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문법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지이고, 2부는 작문(쓰기) 및 문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의 신상 정보와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해당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책임연구자 이삼형(인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설문지 작성 방법】

-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 작성 부분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거나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 1부에서는 '문법 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소요시간 10-15분)
- 2부에서는 '작문·문법 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요시간 5분)

◆ 응답자 작성 부분

직업	<input type="checkbox"/> 회사원(사무직)	<input type="checkbox"/> 회사원(영업직)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령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이상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12. 다음 [A], [B] 중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법 교육 방식을 고르시오.

[A]
<p>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격조사는 개인이나 개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일일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p> <p>격조사는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등이 있다. (중략) 관형격조사는 문장 안에서, 말에 오는 개인이 뒤에 오는 개인과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사로 대표적으로 '의'가 있다.</p> <p>활동) 다음 문장에서 관형격 조사가 쓰인 부분을 밑줄을 치고 그 의미를 알게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저는 <u>아빠의</u> <u>사랑</u>을 받았습니다. · <u>공부</u>는 <u>학생</u>의 <u>본분</u>이라 할 수 있다.</p> </div> <p>해답: · 저는 <u>아빠</u>의 <u>사랑</u>을 받았습니다. · <u>학생</u>이 <u>나</u>는 <u>학생</u>의 <u>말</u> <u>행위</u>에 <u>소속</u>되거나 <u>소유</u>됨을 나타낸다. · <u>공부</u>는 <u>학생</u>의 <u>본분</u>이라 할 수 있다. · <u>말</u> <u>행위</u>이 뒤 <u>학생</u>이 <u>나</u>는 <u>행위</u>의 <u>대상</u>임을 나타낸다.</p>

[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저는 <u>○○</u>의 <u>친척</u>임을 <u>사정</u>합니다. ㉡ 요즘에 <u>부서</u>은 <u>진영</u>이 나타나서 <u>저</u>는 <u>너무</u>나도 <u>걱정</u>이 됩니다. (중략) ㉢ <u>친척</u>임을 <u>알려</u>줘 <u>주신</u>것입니다.</p> </div> <p>활동) 위글은 인터넷 민원서를 옮긴 것이다. 문법을 고려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고쳐 보자.</p> <p>해답: · ㉠ '저'는 주로 소유나 소속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u>살고</u> 있는 장소를 나타내고 <u>말</u> <u>행위</u>는 <u>말</u> <u>행위</u>를 사용한다. 즉 '저는 ○○에 <u>살고</u> 있는 <u>친척</u>이라고 합니다.'와 같이 고친다. · ㉡: 같은 문맥상 <u>표현</u>을 <u>알려</u>줘 <u>주신</u>것이다. <u>중략</u>은 '나타나다'라는 어휘로 표현하기 보다는 <u>보통</u> <u>고지</u>고 있는 <u>대상</u>이므로 <u>유형</u>이다가 <u>표현</u>한다. 즉 '지금 <u>부서</u>은 <u>진영</u>이 <u>출장</u>하고 <u>있어</u>, ○○을 <u>주변</u>을 <u>확인</u>할 <u>말</u>이 <u>조금</u> <u>있습</u>니다.'와 같이 고친다. · ㉢: '~주시길요'는 준말인 '주시길'에 '요'가 붙은 말이다. 준말은 <u>공통</u>을 <u>위</u>는 <u>이해</u>가 <u>거</u>고 <u>반응</u>적인 <u>능력</u>을 <u>주</u>므로, <u>공통</u>에서는 <u>어</u> <u>공통</u>지 <u>않</u>으며, '요'는 <u>상대</u>를 <u>경우</u>에 <u>두고</u> <u>구어</u>에서 <u>주</u>로 <u>사용</u>하는 <u>말</u>이므로, '주시기'를 <u>명</u>합니다.와 같이 표현한다.</p>

[A] [B]

A Survey on the Adults' Perception and Ability for Composition and Grammar

Kim, Jung-sun · Lee, Sam-hyung · Kim, Si-jeong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al state of adult's perception and ability for composition (writing) and grammar was analyz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paper-and-pencil test. In summary of this survey result, adult were perceiving the ability of writing would be important in official writings such as report official letter, plan, civil complain, etc. and writing actively mainly in media such as SNS and company email. They were also writing relatively often the writings related to their work or for maintaining their social relationship. It was found that the difficulty they felt during writing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kinds of writing. Any systematic education of grammar for adults after graduating high schools was not conducted properly. They were also perceiving grammar in narrow sense such as normative wording or vocabulary. Most of the respondents thought knowledge of grammar would be helpful for writing, and they responded that they wrote a writing in consideration of grammar not only for avoiding grammatic errors but also for clarifying their thinking and reinforcing the expression effect of phras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y preferred the grammar skill focusing on content necessary for writing to the current way of grammar skill focusing on knowledge.

Next, in summary of paper-and pencil test, the average of total survey subjects was 44.8 points out of 100. In the linguistic layers, marking was

the lowest, 23.2 points, vocabulary 37.6, phrase 51.1 and conversation 67.3. In the average of total poi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society member and society member, male and female, but i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0s and over 20s.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of above survey and paper-and-pencil test verified that there existed a very strong perception that grammar knowledge would be necessary for adult's writing and grammar education should be composed of contents necessary for writing rather than focusing on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grammar necessary for writing should be getting over the level of norm and set up to be oriented mainly toward expression to reveal its thoughts more clearly or transfer effectively its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 of composition for adult should be made, different from that in school education, intensively for the writing kinds that adults need such as official writings, objective writings, work-oriented writings, writings to maintain social relationship. Lastly, there was almost none of grammar education for adults up to now and, if any, such education focussed on the accuracy of norm. Nevertheless, the grammar ability of adults showed the lowest score. such result implies that it requires reflection and change in all aspects of the current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or adult.

김정선

소속: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이삼형:

소속: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김시정

소속: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이 논문은 2015년 12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2월 2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되었음